

포클로어 연구란 무엇인가

시마무라 다카노리

번역: 박승현

들어가며

최근 일본 민속학계에서는 종래의 일본민속학을 ‘20세기 민속학’으로 비판적으로 총괄하고, 새로운 분과학문의 형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福田·菅·塚原, 2013). 필자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속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온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이다. 본 논문에서는 필자가 현재 구상하는 ‘포클로어 연구(Folkloristics)’의 개요를 논의하고 싶다. 필자가 생각하는 포클로어 연구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포클로어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모든 학문분야와의 학제적 상황 속에서 성립된 분과학문의 하나이다. 이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클로어 연구를 통해 세계의 성립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다. 포클로어 연구는 지금까지의 민속학의 지적 전통을 비판적,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이하의 여섯 가지 특성요소가 복합된 연구를 그 전형으로 하는 분과학문이다.

- ① 포클로어(어떠한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사람들(folk)사이에서 생성되어(生み出され), 생동하는(生きられた), 경험(experience)·지식(knowledge)·표현(expression)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 ② ‘현재’를 두터운 역사의 지층(시간성) 위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과거’와의 관계성을 검증하는 것에 기반하여 ‘현재’의 현상을 해석하는 것을 주된 방법론으로 삼는다.
- ③ 인간과 ‘물질(もの)’(조형물·물질적 현상)의 관계를 중시한다.
- ④ 문헌학(philology)적 지식이나 언어감각(언어에 대한 전반적, 총합적인 판단력)이 대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⑤ 포클로어(フォークロア)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folk)과 그들이 살고 있는 필드, 그리고 연구자나 학계 사이에는 깊은 호혜성(reciprocity)이 존재한다.
- ⑥ 이른바 ‘수입학문’이 아니다. 생성모체인 언어권에서의 내발적인 학문이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특성요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해설하겠다. 이 새로운 분과학문을 ‘민속학’이 아니라, ‘포클로어 연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까지의 민속학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한편 이를 위해, 영어 Folklore를 가타카나로 옮겨 ‘フォークロ(포클로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포클로어 연구(Folkloristics)와 대화 가능한 것으로서 이 학문을 구상하고 있음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²

1. 포클로어

포클로어 연구에서는 포크(folk)를 ‘어떠한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사람들’라고 정의한다. 컨텍스트란, 포클로어가 생성되고 생동하는(生み出され, 生きられる) 문맥, 혹은 맥락을 의미한다. 컨텍스트에는 지역, 가족, 친족, 친구, 직업, 학교, 종교, 종파, 에스니시티, 젠더, 계층, 국가, 시대, 세대, 사회문제, 공동의 관심 등의 많은 차원의 것이 상정된다. 그리고 어떠한 컨텍스트라도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포크(フォーク)로서 파악할 수 있다.³ 이 포크의 사이에서 생성되고(created), 생동하는(lived) 경험·지식·표현이 포클로어이다.

포클로어가 포크사이에서 생성되고 생동하는 것이라 할 때에, ‘사이에서’는 포클로어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포크 구성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한 명, 혹은 둘, 혹은 그 이상일지라도 무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개인이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이나 지식, 표현도 포클로어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포클로어란 ‘생성되고(生み出される), 생동하는(生きられる)’ 것인데, ‘생성되는’이란 ‘창조되었다(created)’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때에, 창조라고 하지만, 독창적인 창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고 있을 때를 제외하면 인간의 삶이란 창조의 연속이다(자고 있더라도 꿈을 꾸다면 그것은 창조이다). 이 창조(創造)에는 독창성이 돋보이는 것도, 혹은 독창성이 없는 것도 모두가 포함된다. 그리고 일단 창조된 경험·지식·표현은, 창조됨과 동시에 창조한 본인에 의해 ‘생동한다(生きられる)’(여기서 말하는 ‘생동한다’란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개인에 의해 실천되고 운용된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생동하는’ 경험·지식·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그 인물에 의해 ‘생동한다’. 이 ‘생동하는’ 과정은 ‘살아있는(生きる)’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창조’의 과정이기도 하다. 포클로어는 인간에 의해 생성되는 동시에 인간이 그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되고 생동하는 포클로어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생동하고=창조되는 것이다.⁴

‘생동한다(生きられた)’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포클로어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생동한다’라는 개념의 기반에는 상층문화(high culture), 엘리트 문화(elite culture), 대중문화(popular culture), 혹은 공적 기관이나 제도 등 지금까지의 민속학 — 여기서는 ‘보통사람들’ ‘민중’만이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 에서는 연구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의 현상(Sims and Stephens, 2011: 3~4)도 포클로어 연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독창성이 뛰어난 예술작품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 행정조직이나 기업 활동 등이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예술작품이나 대중매체의 정보, 행정조직이나 기업의 활동 등은 그것이 객체로서만 존재한다면 포클로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떠한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생동한다(生きられた)’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클로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포크(folk)가 ‘어떠한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로어(lore)는 그 사람들에게 의해 ‘생성되고 생동하는 경험·지식·표현’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행하는 등의 것과 그 축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라이프 히스토리나 라이프 스토리에서 들을 수 있는 인생

이나 그 이야기의 내용은 실로 그 경험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은 세계에 대한 지혜와 식견, 이해와 인식의 내용이다. ‘표현’이란 우선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전달하는 프로세스와 그 전달내용을 가리킨다(이 경우 의도적인 것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달된 것도 포함한다). 또 이에 더해 인간이 어떠한 사물의 의미를 파악할 때에 그 사물은 이미 그 의미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혹은 의미가 ‘표현’되고 있다), 이를 ‘표현’의 범주로서 파악할 수 있다.⁶

이상과 같이 필자가 포클로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 경험·지식·표현의 세 개념을 설정했지만, 이 세 개념은 실제로는 서로 복합적일 때가 많다. 예를 들면 라이프 히스토리나 라이프 스토리는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경험’에는 많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란 이를 말하는 사람이 행하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혹은 모든 포클로어는 표현된 것이며, 지식이며,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포클로어 연구의 연구대상으로서의 포클로어란 ‘어떠한 콘텍스트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생성되어, 생동하는 경험·지식·표현’이다. 하지만 ‘어떠한 콘텍스트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생성되어, 생동하는 경험·지식·표현’이라고 한다면, 포클로어 연구 이외의 분과학문에서도 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더 나아가 이를 포클로어라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떠한 콘텍스트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생성되어, 생동하는 경험·지식·표현’이라고 포클로어를 설명하는 것은, 이를 포클로어 연구를 진전시킴에 있어서 연구대상을 파악하는 데두리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클로어 연구가 존재하기에 포클로어라는 개념이 설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포클로어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콘텍스트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져, 생동하는 경험·지식·표현’은 포클로어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포클로어 연구란 무엇인가. 이는 앞에서 열거한 여섯 가지의 특성요소의 조합을 전형으로 분과학문이다. 이 경우 본 절에서 다룬 ‘포클로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라는 것도 특성요소의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포클로어 연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어서, 포클로어 연구를 구성하는 특성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겠다.

2. ‘과거’와 ‘현재’

포클로어 연구의 방법론에 있어서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현재”의 현상을 ‘과거’와의 관계성의 검증을 기초로 해석한다’라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민속학에 있어서도 방법론적 인식의 중심에 있었던 사고였다.⁷ 포클로어 연구에서는 두터운 역사가 지층과 같이 쌓여 있는 그 위에 ‘현재’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山, 2009: 25; 島村, 2012: 182~183). 그리하여 그 역사의 지층을 한 장씩 벗기면서, 그 쌓여있는 모습에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봄으로써 ‘현재’가 어떻게 성립하고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법론은 ‘과거(역사)’를 다루지만, 역사학의 그것과는 다르다. 역사학에서는 특정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모습을 재구성하거나 어떠한 현상의 기원을 해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현재’와 ‘과거’의 관계성을 해명하는 것, 즉 ‘현재’가 어떻게 ‘과거’의 축적에 의해 성립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명은 보통 이루어지지 않는다(福田·菅·塚原, 2013: 169~170). 그리고 이는 역사사회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山, 2009: 25). 이에 비해 포클로어 연구에서는, ‘과거’와의 관계성을 검증하는 것을 기반으로 ‘현재’가 어떻게 성립했고 그 모습은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론이다.⁸ (생략)

3. ‘물질(もの)’

포클로어 연구에서는, 사람과 ‘물질(もの)’(조형적·물질적 현상)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필자는 2010년에 『<살아가는 방법>의 민속학(<生きる方法>の民俗誌)』(島村, 2010)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는 후쿠오카 시의 조선계 주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경험·지혜·표현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개념으로 고찰했는데, 분석을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시점에 유의하였다. 한 가지는 ““현재”는 어떠한 역사적 층위 위에 성립하고 있는가”였고, 또 하나의 시점은 ‘사람들과 “물질(もの)”의 관계란 어떠한 것이었는가’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전자는 앞에서 쓴 ‘과거와의 관계성의 검증’의 실천이며, 후자는 본 절에서 언급할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라는 문제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본 저서에서 주목한 구체적인 ‘물질(もの)’은 주거였다. 바락이나 공영주택단지과 같은 주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리고 어떠한 궁리, 즉 (<살아가는 방법(生きる方法)>)에 의해, 그들의 주거를 자신들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었는가에 주목하여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경험·지혜·표현을 분석했다.

야마 요시유키(山泰幸)는 이 책을 읽고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이 책의 기술과 분석은 “인류학의 실천론적 전개와 절반쯤 방법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와 다른 것은, 현재의 생활이 과거의 <살아가는 방법>의 산물이고 또한 그 산물을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현재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즉 가장 가까운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이해하고 해독한다고 하는 민속학에 독자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집락지역의 입지와 바락 등의 건조물 등, <살아가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물질문화에 주목한 점에서도 행위와 말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 된다.”(山, 2011: 257) 필자가 실천하고 있으며, 야마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성에 주목하는 것과 함께 ‘물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포클로어 연구의 특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구와야마 다카미(桑山敬己)는 문화인류학과 민속학의 상대적인 차이는 ‘물질(もの)’에 대한 관심의 차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桑山, 2008: 169~174). 인류학자인 구와야마는 ‘민속학자와 함께 하면서 위화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며, 그것은 민속학자들의 ‘물질(もの)’에 대한 깊은 관심이랄까 집착’을 느낄 때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민속학자들과의 공동조사에서, 그는 ‘민속학자는 인류학자보다 한층 물질에 대한 관심이 깊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 “향토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이를 더욱 강하게 느꼈는데, 인류학자들이 물질의 상징성이나 전시방법에 흥미를 느끼는 반면, 민속학자들은 전시되어 있는 것 그 자체(예를 들어 직물이라면, 소재와 디자인, 기법 등)를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다고 느꼈다.”

이 경험을 토대로 구와야마는 인류학에서 ‘물질’을 다루는 방법을 검토한다. 이를 참고하면, 영국에서 ‘인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테일러(Edward Tylor) 이전에는, ““인류학의 식민주의적 뿌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학자는 식민지에서 찾아낸 사물들을 본국의 민족학박물관에 남김없이 전시했다.’ 그러나 테일러 이후의 영국인류학에서는 사회구조와 정신(가치관이나 세계관)과 같이 비가시적인 것으로 연구중심이 중심이 옮겨져, 대학의 학부와 박물관은 분리되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인류학에서도 보아스 시대에는 박물관의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베네딕트의 시대부터는 에토스-베네딕트 자신이 “패턴”이나 “형상(configuration)”이라는 용어를 쓴-로 연구의 중심이 옮겨간다. 더욱이 1960년대가 되어서는 상징인류학이 등장하고 기어츠의 해석인류학과 함께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물질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구와야마는 이러한 배경에 대하여 ‘미국은 문화상대주의의 전통이 강하므로, 기술의 진보가 일목요연한 물질은 다루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는 최근의 인류학 개론서에 물질이나 기술에 대한 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고 언급한다.

구와야마는 또한, 야나기타 구니오가 민속자료를 ‘유형문화’, ‘언어예술’, ‘심의현상(心意現象)’의 세 영역으로 분류한 것과, 말리노프스키가 『서태평양의 원양항해자』에서 같은 모델을 제시한 것을 비교하여, 야나기타가 세 영역 가운데 “‘유형문화’를 민속조사의 제1단계로 위치 짓고, 구체적인 물질로부터 연구를 시작할 것을 명확히 제창한 것’에 비해 ‘말리노프스키는 “부족의 조직이나 그 문화의 분석”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로 말리노프스키의 ‘민족지에 물질 그 자체는 그다지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구와야마는 ‘테일러를 인류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인류학자는 전반적으로 물질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이는 일본의 민속학자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이는 물질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학학부와 민족학 박물관이 괴리되어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물질이 문화의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논의한다. 물론 현재에도 ‘물질’에 관심을 기울이는 인류학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민속학자도 있다. 그럼에도 대체로 구와야마의 지적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⁹ (생략)

4. 문헌학과 언어감각

포클로어 연구는 필드워크를 중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헌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연구를 진척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헌학(philology)과 민속학의 관계에 대해 코지마 요시유키(小島櫻禮)(1983)가 정확하게 정리했는데, 이에 의거하여 설명하겠다.

고지마에 의하면, 유럽에서 발달한 문헌학은 ‘좁은 의미로는 고전텍스트의 비판과 해석을 일컬으며, 넓은 의미로는 광범위한 고전고대학(古典古代學)을 의미한다’. 이 문헌학의 발달에 있어서 고전고대학의 큰 버팀목이 된 것은 민속학이었다. 독일의 그림형제는 문헌학자이며 민속학자였다. 일본에서 보면 국학이 문헌학에 해당한다. 그리고 에도시대의 국학에서 민속학적 발상법의 맹아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근대의 민속학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성립하고 있다. ‘일본 민속학의 개척자는 뛰어난 문헌학자였다. 사실상 민속학을 일본에 확립시킨 야나기타 구니오는 보기 드물게 고문헌에 정통한 학자의 한 사람이었고, 특히 근세의 지지(地誌)와 수필류를 이용하여 새로운 민속학의 길을 개척했다. 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는 고전 특히 상대문학(上代文學)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민속학 연구를 하고 있다. 오리구치는 한편으로는 가장 전통적인 국문학자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학자로 여겨지는 경향도 있지만, 문헌학의 본고장이라 할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한다. 좁은 의미의 문헌학은 일본에 보자면 국문학의 영역이며, 그 문헌학이 발달해서 민속학과 맞닿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민속학은 문헌학에서부터 태어났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小島, 1983: 6~10). 고지마는 민속학과 문헌학의 관계를 고전고대학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논의하는데, 여기서 시대를 고대로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고전고대학을 ‘인문학’ 일반으로 바꾸어 읽으면, 고지마가 제시한 논점은 훨씬 범위가 확장될 것이다.

한편, 문헌학의 핵심은 언어에 대한 지식이다. 언어에 대한 관심이 문헌학의 기둥이라 해도 될 것이다. 이는 구조언어학 이후의 언어학이 Linguistics라 불리기 이전에 Philology(문헌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헌학과 필드워크를 기반으로 한 포클로어 연구 사이의 왕복운동을 통해, 언어에 대한 깊고 입체적인 지식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지식형성의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감각(전반적, 총합적인 판단력)이 다듬어지고, 이러한 감각 덕분에 언어에 대한 통찰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¹⁰ (생략)

5. 포크(사람들)와 필드의 상호성

포클로어 연구에서는, 포클로어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folk)이나 그들이 사는 필드, 그리고 연구자와 학계와의 사이에 깊은 호혜성(reciprocity)이 존재한다. 포클로어 연구는, 다음 절에서 다루겠지만, 근대의 동일언어권(근대 모어를 함께 하는 사회¹¹)에서의 ‘내발적인 학문’으로서의 민속학의 계보를 잇고 있다. 그렇기에 포클로어 연구에서는 근대 모어에 기반한 조사연구¹²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도 근대 모어로 발표된다.¹³ 이 때문에 연구자의 저술을 필드의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기도 하다.

구와야마 다카키는 ‘피조사자’가 연구자의 저술의 잠재적인 독자인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민속학과 문화인류학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대체로 인류학자가 상정하는 독자는 자신과 같은 언어문화권의 구성원이며, 묘사되는 문화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민족지가 쓰여진다. 그래서 그야말로 “문화의 해석”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며, 동시에 “대화의 상대”로서의 피조사자의 배제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조사자에 대해 그들의 언어(일본어)로 글을 쓰는 민속학자는, 늘 자신이 쓴 것을 연구 대상자들이 읽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桑山, 2008: 184).

민속학과 포클로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저술이 여러 형태로 필드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결과적으로 ‘읽히게’ 될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는, 원고단계, 혹은 간행후의 저술을 연구자가 포크(사람들)에 보내 읽을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연구자의 저술에 대하여 필드에 사는 포크(사람들)이 코멘트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구자의 저술을 둘러싼 포크(사람들)와의 상호성은, 미국의 포클로어 연구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필드에 사는 사람들을 인포먼트(informant)나 객체(subject)가 아니라, ‘고문(顧問)’을 의미하는 컨설턴트(consultants)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보다 완성도 높고 균형 잡힌 해석을 위해, 대부분의 포클로어 연구자는 연구자 자신의 분석에 컨설턴트들의 관찰이나 코멘트를 반영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에스노그래피는 호혜적 민족지(reciprocal ethnography)라고 불린다.¹⁴ 이러한 에스노그래피의 작성과정에 있어서, 연구자는 에세이, 논문, 서적의 원고를 컨설턴트에 제공하고, 기술의 오류를 지적 받거나 컨설턴트의 해석을 제공받기도 한다. 또한 포클로어 연구자의 중요한 역할은 컨설턴트와 연구자가 공유하는 해석에 형태를 부여하고, 틀을 짜나가는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Sims and Stephens, 2011: 228~231).

한편, 민속학의 역사에서, 필드에 사는 사람들이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글을 쓰고 저술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야나기타 구니오는 전국 각지에 사는 필드의 사람들이나 그의 저작의 독자들을 잡지나 우편, 강습회와 같은 매개를 활용하여 ‘채집자’ ‘투고자’로 조직했다. 그중에는 뛰어난 조사보고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그들은 현지에서 살아가는 민속연구자로서 활약하게 되었다.¹⁵ (생략)

이상에서 본 포크(사람들)와 필드, 그리고 연구자와 학계와의 상호성은 포클로어 연구가 아카데미즘 속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찰스 브릭스(Charles L. Briggs)는 다음과 같이 논했다.

즉, 포클로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필드에 사는 포크(사람들)를 ‘이론이나 분석을 창조하는 주요한 원천’으로 위치 짓고, 포클로어 연구자는 포크의 말을 ‘철학, 역사, 민속학, 인류학, 민족·인종연구, 민족음악학, 그 외의 분야와의 대화로 이끌어’ 포클로어 연구에 있어서의 ‘해석’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포크에 의한 이론화의 실천’, 즉 ‘학술적 이론화가 창조하는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메타 담론’을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행하는 “이론

의 민주화” 위에, 타학문에 있어서의 지식형성의 실천을(도) 적용할 때에, 보다 참신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거기에서 계몽사상에 뿌리를 둔 ‘대이론’과는 다른 ‘신이론’의 공동체-포클로어 연구 이외의 학문적 전문가나 예술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되어 온 사상가를 포함한 폭넓은 이론가의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포클로어 연구와 포클로어 연구자가 다른 학문이나 조직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표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ブリッグズ, 2012).

현장(フィール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론이나 분석의 창조의 중요한 원천으로 여기며, 그들의 말을 학문의 세계와의 대화로 이끄는 것이 포클로어 연구의 해석을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고 한 브릭스의 언급은, 포크(사람들)·필드와 연구자·학계와의 깊은 상호성에 대한 논의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성의 양상은 브릭스가 제시하는 포클로어 연구의 독자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 경우, 브릭스의 논의는 도로시 노이즈(Dorothy Noyes)의 ‘소박한 이론(Humble Theory)’의 학문으로서의 포클로어 연구라는 논의와도 이어진다.

노이즈는 포클로어 연구가 개척해야 할 ‘이론’이란, 사회학이나 인류학, 심리학이 구축하는 대이론(Grand Theory)이 아니라, 소박한 이론(Humble Theory, 謙虚な理論)이라고 말한다. 대이론은 대이론 자체를 위하여 ‘인간의 본성, 사회의 본질 등의 거대한 대상을 구축한다’. 이에 비해 ‘대학의 친밀한 타자’로서의 포클로어 연구는 ‘대이론과 코럴적인 해석의 “중간”에 놓여 대이론을 비판하는 지점에서 생겨나는 ‘소박한 이론’인 것이다(노이즈, 2011).

노이즈는 ‘소박한 이론’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 학문의 독자성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포클로어 연구의 독자성이 온전히 발굴될 수 있을까? 필자는, 그 상황이란 브릭스가 논의하는 ‘이론의 민주화’, ‘신이론의 공동체가 실현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소박한 이론으로서의 포클로어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학문영역이 갖는 특성 중의 하나로서의 ‘포크(사람들)·필드와의 상호성’이 되는 것이다.¹⁶

6. 내발성

포클로어 연구는 이른바 ‘수입학문’(桑山, 2008: 68,147)이 아니다. 이는 근세 국학을 토대로(柳田 1967:58~94) 근대의 동일언어권에서 ‘안으로부터 스스로 생겨난(自発)’(柳田, 1986:54) 학문으로서 태어난 민속학 이래의 전통이다.

쓰루미 가즈코(鶴見和子)는, 야나기타 구니오의 민속학을 제외한 메이지 이후의 일본의 사회과학이 대부분 헤테로로지컬(heterological)적인 것이었던 데에 비해, 야나기타의 민속학은 호모로지컬(homological)적인 학문의 창조를 지향한 것이 특징이라고 논한다.

쓰루미에 의하면, 헤테로로지컬적인 학문이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 바깥에서 만들어진 방법론으로 한 사회를 연구하는’ 것이며, 여기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바깥에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에 비해 호모로지컬한 학문이란 ‘연구방법이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생겨나, 그러므로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이 동일한 논리구조를 가지며’, 또한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같은 집단에 속한 이들로써 자신과 연구대상을 다루는’ 학문, 즉 ‘이론과 연구대상이 같은 뿌리를 가진(同根性)’ 학문이다. 그리하여 야나기타는 ‘일본의 민속을 안에서부터 이해하는 방법’으로써 이러한 의미에서 ‘호모로지컬적인 민속학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鶴見, 1985: 189; 鶴見, 1998: 162~163).

쓰루미의 ‘호모로지컬한 학문’은 다시 말하면, ‘수입학문’에 대비되는 ‘내발적인 창조성’(鶴見, 1985: 15)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학문의 전통은 포클로어 연구에 있어서도 계승되어야 할 것으

로, 이 ‘내발성’을 토대로, 예를 들어 ‘외재하는 이론에 기대는 경향이 있는 민족학(문화인류학)을 상대화하고 비판하는 시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鈴木, 1994: 161).

그러나 이 ‘내발성의 학문’을 쇄국주의적인 ‘내향적’ 학문이라고 간주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내발성의 학문’으로서의 포클로어 연구는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포클로어 연구(Global Folkloristics)’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포클로어 연구의 원형은 야나기타 구니오의 ‘세계민속학’의 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야나기타는 일본을 포함하는 세계 각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민속학을 구축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민속학을 세계적인 규모로 서로 견주어 봄으로써 ‘세계민속학’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했다(柳田, 1986: 53~56).

다만 야나기타는 이 ‘세계민속학’을 민속학연구의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사태의 복잡성이나 비교의 어려움, 인간의 생의 유한성을 고려하면 쉬운 계획이 아님이 분명하며, 현재의 세상물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한 장대한 꿈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내향적 사고에 기울어 있는 이가 많아 사정이 더욱 어렵다’라고 하며, 그 실현을 먼 장래의 일로 여겼다.

야나기타가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은 1930년대의 일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는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80년의 세월이 흘러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이제 글로벌 포클로어 연구가 시대가 눈앞에 있는 것이다.

구와야마 다카미는 인류학계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이와 세계민속학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그 논의를 정리하면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모든 학문은 세계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심과 주변이 있다. 인류학의 경우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이다. 이 세계 시스템 속에는 이 중심 이외의 위치에서의 발언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억압되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존재한다. 오랫동안 인류학의 대상이 되어온 비서양의 네이티브(여기서는 일반 주민들뿐 아니라 현지의 연구자도 포함된다)는 인류학에 있어서, 연구대상으로서는 필수적이지만, 대화의 상대로서는 배제되어왔다. 이러한 구조는 현재에도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고 있다. 단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부이지만, 최근에는 지금까지 인류학의 대상에 불과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와 문화를 인류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인류학적 자어(anthropological self) — 제 민족의 문화를 관찰하고 묘사하는 에이전트 — 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진전되면 서양에 의한 지적지배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개혁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서양의 지적 지배를 해체할 수 있을까. 여기서 추구되는 것이 연구자를 포함한 주변의 네이티브와 중심의 서양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dialogic space)’으로서의 ‘자리(座)’(비유적으로 공동극장communal theater)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상당하는 것이 바로 야나기타가 구상하는 세계민속학이다. 서양에 의한 지적 지배가 지속되는 가운데, 네이티브에 의한 자문화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현재, 민속문화에 대한 지식의 비교와 총합의 장 — ‘자리(座)’ — 로서의 세계민속학이라는 야나기타의 구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桑山, 2008: 3~184).

구와야마는 인류학의 세계시스템을 상대화하는, 세계 속의 네이티브의 학문의 총합을 ‘세계민속학’으로 위치 짓는다. 이와 같은 견해는 가와다 준조(川田順造)에 의해서도 표명된다. 인류학자인 가와다도 구와야마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인류학이 놓여있는 상황을 네이티브로부터의 발언의 시대로 파악하고, 세계민속학의 유효함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민족학이나 문화인류학에 있어서의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가 그야말로 야나기타 선생이 예견한 “세계민속학”의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나는, 이시타(石田)(에이치로(英一郎): 인용자 주)선생이 일국민속학(一國民俗學)이 비교민속학이나 문화인류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한 것과는 반대로, 민족학이나 문화인류학이 일본민

속학과 함께 세계민속학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川田, 2007: 127)

구와야마나 가와다가 주목한 ‘세계민속학’, 필자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글로벌 포클로어 연구¹⁷는 착실하게 실현되고 있다. 2011년에 간행된 레기나 벤디스(Regina F. Bendix)와 가리트 한슨 로켄(Galit Hasan-Rokem)의 “A Companion to Folklore”(Bendix and Hasan-Rokem, 2011)는, 세계 각국의 포클로어 연구자 33명이 집필한 그야말로 포클로어 연구서라고 할 서적이다. 본서를 읽어 보면 이 책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내발성의 학문’의 ‘자리’가 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야나기타가 이념으로서 구상한 ‘세계민속학’이 바야흐로 ‘글로벌 포클로어 연구’로 실현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민속학계에서도 일본 민속학과, 독일, 미국, 중국, 한국 등의 포클로어 연구와의 비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¹⁸ 일본의 포클로어 연구가 해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언하여, 세계적인 포클로어 연구의 ‘자리’로서의 글로벌 포클로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포클로어 연구에 대해 개론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확인해두고 싶다. 포클로어 연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섯 가지의 특성요소가 복합된 것을 전형으로 하는 분과학문이다. 단, 그 복합의 양상이란,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예이며, 여섯 가지의 특성 중에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포클로어 연구이다. 또한, 여섯 특성요소의 복합, 혹은 거기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요소가 빠진 상태의 경우, 본고에서 논한 특성요소 이외의 특성요소가 더해진 상태도, 포클로어 연구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포클로어 연구와 그 이외의 학문의 영역의 경계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이다. 어떠한 연구를 포클로어 연구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포클로어 연구와 포클로어 연구와는 다른 특성요소의 복합을 전형으로 하는 분과학문의 어느 쪽에 가까운가의 문제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어떠한 연구가 포클로어 연구의 전형에 가깝다면 그 연구는 포클로어 연구이며, 반대의 경우라면 다른 분과학문의 명칭을 쓰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경우 당연히 병칭(併稱)을 고려해도 좋을 것이다. 해당 연구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분과학문이 포클로어 연구인 경우 그 연구는 포클로어 연구라고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가깝다고 판단되는 학문영역의 명칭도 필요에 따라 포클로어 연구와 함께 병칭하면 좋을 것이다. 그 반대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경우 제1의 명칭에 더하여 포클로어 연구라는 이름이 제2의 명칭으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관계되는 학문영역이 셋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이론에 따라, 세 가지 이상의 명칭을 겹쳐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다시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것은, 포클로어 연구는 인문사회계 학문의 학제적 상황에서 성립했다는 점이다. ‘학제적(interdisciplinary)’이란 것은 분과학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로써 포클로어 연구라는 하나의 분과학문이 설정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기완결적인, 단혀있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학문이란,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없이는 잘 보이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잘 보이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물을 보는 방법’ ‘사태의 해명장치’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보는 방법’ ‘해명장치’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가질 때에 사물이나 사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포클로어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스스로 학문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다른 학문과의 대화, 접합을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 1 포클로어 연구가 그 성립을 해명하고자 하는 ‘세계’는 ‘인간사회 전체’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 ‘세간(世間)’ ‘세상(世の中)’ ‘지구상에 퍼져있는 모든 것’ ‘우주’ ‘객관적 감성계’ ‘개념적으로 구성된 기계적 세계’ ‘심리적 세계’ ‘직접체험의 세계’(이상의 어구는 『정선관 일본국어대사전(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2006)에 따른다) 등 어떠한 차원의 것이라도 무방하다.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세계’의 스케일은 자유롭게 설정된다. 또한 ‘세계’의 해명은 포클로어 연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학이 ‘사회’라는 개념을, 인류학이 ‘인류’라는 개념을, 언어학이 ‘언어’라는 개념을, 문학연구가 ‘문학’이라는 개념을, 지리학이 ‘지리’라는 개념을, 경제학이 ‘경제’라는 개념을, 정치학이 ‘정치’라는 개념으로, 자기 ‘세계’의 해명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클로어 연구는 포클로어라는 개념으로 이에 다가가려고 한다. 그리고 세계는 이와 같은 다양한 학문영역의 협업과 융합에 의해 해명되는 것이다.
- 2 포클로어 연구에 상당하는 분과학문의 명칭은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예를 들어 2011년에 간행되어 세계적인 포클로어의 동향을 소개한 “*A Companion to Folklore*” (Bendix and Hasan-Rokem, 2011)에서는, 세계 각 나라의 포클로어 연구를 영어로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의 명칭으로서 포클로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 용어를 기본으로 각국의 학문의 내용이 각 나라에서의 명칭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세계 포클로어 연구를 총괄하는, 현시점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한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포클로어 연구에 관련된 학문영역을 가리킬 때 쓰이는 공통호칭이 포클로어인 것도 고려하여, 필자는 본인이 구상하는 분과학문의 명칭에도 이 용어를 쓰는 것이다.
- 3 포크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앨런 던데스(Alan Dundes) 에 의한 다음의 정의를 참고하여 고찰한 것이다. ‘어떤 집단에서도 사람들은 공통의 인자를 나누어가지고 있다.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인자가 어떠한 것이어도 상관없다. 공통의 직업도, 언어도, 종교도, 무엇이든 괜찮다(ダンデス, 1994: 30~36; Dundes, 1977). 단, 던데스는 사람들이 포크로서 정의되는 조건을 ‘공통의 인자(common factor)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필자의 경우, 이를 ‘어떠한 컨텍스트(context)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던데스가 말하는 factor에는 context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필자는 포클로어는 컨텍스트와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본다면, 어떠한 인자(factor)를 공유하고 있다면 컨텍스트와는 관계없이 포크라고 간주한다면, 컨텍스트를 경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포크의 인정기준을, 단지 인자가 아니라 컨텍스트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포클로어와 컨텍스트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Ben-Amos(1972: 3~15; 1977: 36~53), Sims and Stephens(2011: 18~21)을 참조.
- 4 포클로어를 생성되고, 생동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미국의 포클로어 연구에서도 종종 보인다. 예를 들면, “Folklore is lived, experienced, created, and shared by people.”(포클로어는 사람들에게 의해 생동하고, 경험되고, 생성되고, 공유되는(人びとによって, 生きられ, 経験され, 生み出され, 共有される)(Sims and Stephens, 2011:31)것으로 설명된다.
- 5 이러한 ‘생동하는(生きられた)’의 차원은, 토착(vernacular)이라는 용어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버내클러(ヴァナキュラー)는 ‘토착의’나 ‘로컬의’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미국의 포클로어 연구자인 네오나르도 놀먼 프리미아노(Leonard Norman Primiano)는 여기서 말하는 ‘생동한다’는 차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버내클러를 쓰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을 포클로어 연구의 대상으로서 위치 짓는다(プリミアノ, 二〇〇七, Sims and Stephens, 2011:65). 프리미아노는 특히 버내클러의 차원에서 종교의 양상을 논의하면서 ‘버내클러의 종교는 생동하는 종교(生きられた宗教), 즉 사람들이 만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종교이다. 종교는 해석을 생득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개인의 종교가 토착적이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교황도,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도, 이스탄불의 총주교도, 예루살렘의 랍비도, 순수무구한 종교생활을 “공식(公式)”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성직계급의 구성원들은 그 종교전통에 의한 제도규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대표하지만, 버내클러적인 신앙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보통 얼마간의 수동적 적응이 있고, 얼마간의 흥미로운 습관이 있고, 얼마간의 능동적인 창조가 있고, 얼마간의 반체제적인 행동이 있고, 얼마간의 생활체험으로부터의 반성이 있으며, 그리하여 개개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생활을 할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분석하고 있다(プリミアノ, 2007: 134~140). 필자도 프리미아노의 용법을 따라 ‘생동하는’ 차원을 버내클러로서 개념화하고, 포클로어 연구의 주제로서 전개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 6 미국의 포클로어 연구에서는, 1970년 이후 퍼포먼스 연구(小長谷, 2010; Sims and Stephens, 2011: 130~179)가 전개되는 가운데 ‘표현’에 주목하는 것이 일 반화되고 있다. 포클로어 자체의 정의도 ‘표현’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트레보 블랭크(Trevor J. Blank)는, 2009년에 간행된 저서에서 ‘포클로어는 개인, 혹은 그 개인이 살아가는 커뮤니티에 의해 생겨나는 창조성의 발현이자 표현이며, 이는 무수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것’(Blank, 2009: 6)이라는 정의를 제시한다.

- 7 ‘백 년 이백 년 전 옛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오늘에 이어지는 사정과 같은 것이 우선 알고 싶다(柳田, 1967: 12)고 말한 야나기타 구니오의 민속학은, 그야말로 이 방법론에 의해 성립하고 있다.
- 8 ‘과거’와의 관계성에 기반해 ‘현재’를 해명하는 작업은 독일의 포클로어 연구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시기까지 독일의 포클로어 연구(フォルク스kunde)는 단지 독일 낭만주의 사조 안에서 게르만적 요소의 복원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본질주의적 기층문화 연구로서 전개되어, 그것이 국민국가 이데올로기나 나치즘으로도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河野, 2005). 그러나 전후에는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자기 비판이 이루어져, ‘일상’ ‘일상화’를 주요개념으로 하는 일상연구로 전환되었다(法橋, 2010; Bendix, 2012). 이때에 ‘일상’연구로서의 포클로어 연구에 있어서는, 일견 비역사적인 것으로 보이는 ‘일상’의 성립을, 즉 ‘시간적 변화·역사적 경험이 일상에 회수되어 비역사화되는 과정’을, 거기에 접점이 접혀있는 듯한 중층적인 역사적 경험을 추출하는 것으로써 해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法橋, 2010). 여기서는, 예를 들어, 독일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컴퓨터를 생활세계에 가져와 이것을 ‘일상화’하게 되었는가(ヘアリン, 2010)와 같은 연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 9 포클로어 연구가 ‘물질’을 중시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포클로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헨리 그라쉬(2012: 193~252), 히라야마 미유키(平山美雪, 2008) 등을 참조.
- 10 포클로어 연구에 있어서의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와모토 미치야(岩本通弥)(1980), 세키 카즈토시(関一敏)편저(1998)를 참조. 한편, 언어에 대한 깊은 통찰이 포클로어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독일 포클로어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헤르만 바우징거(Hermann Bausinger)는 ‘국문학적 색채가 농후한 민속학의 영역에’,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지지부진했던 연구영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浅井, 1982: 278)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의 저서 『말과 사회-다양한 독일어-(ことばと社会-さまざまなドイツ語-』(バウジンガー, 1882)도 언어에 대한 깊은 통찰에 기반한 ‘언어의 포클로어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성과이다.
- 11 필자는 ‘모어’에 두 가지의 차원을 설정하고 있다. 한 가지는 지역어(방언)가 모어로 쓰이는 차원. 또 하나는, 근대 국가어로서의 공통어, 혹은 공통어와 방언이 섞인 언어가 모어로서 사용되는 차원이다. 여기서는 전자를 ‘지역 모어’, 후자를 ‘근대모어’로 부르겠다.
- 12 포클로어 연구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조사는 ‘근대 모어’가 아니라 ‘지역 모어’에 의한 것이리라. 왜냐하면 포클로어 연구는 일찍이 지역 모어로 표현되는 것이 보편이었고, 현재에도 그러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 모어를 완전히 가깝게 당사자와 공유하고 있는 연구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근대 모어를 매개로 지역 모어의 세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13 여기서 필자는 연구 성과의 발표를 근대 모어로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근대 모어로 국내에서 발표하는 것과는 별도로, 외국어로 외국에서 연구 성과를 발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조사연구의 필드 역시 우선 근대 모어를 공유하는 사회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절대 포클로어 연구의 필드를 국내에 한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조 연구나 비교연구로서의 의미를 포함하여, 해외에서의 조사연구 역시 포클로어 연구에서 중요하다.
- 14 호혜적 에스노그래피라는 용어는, 포클로어 연구자인 일레인 로레스(Elaine Lawless)(1991, 1992)에 의해 쓰이기 시작했다(Sims and Stephens, 2011: 313).
- 15 야나기타 민속학에 있어서 필드의 당사자나 독자의 조직화에 대해서는(牧田, 1979: 189~215; 井之口 1979: 225~252; 柳田國男研究会編著, 1988 790~861)를 참조. 또한 『일본민속학대계(日本民俗学大系)』 전13권(平凡社, 1958~1960)에는 각 권말에 ‘부고자 소개, 민속학에 기여한 인물들’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약한 민속학 연구자들이 소개되고 있다.
- 16 또한 여기서 소개한 브릭스와 노이즈의 논의는, 일본 민속학의 전통이며, 최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野の学問’을 둘러싼 논의(菅, 2013)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여기서 이미 스가(菅)(2012)는, 노이즈가 언급한 ‘소박한 이론’을 ‘野’의 학문에 연결시키는 논의를 하고 있다). 브릭스나 노이즈가 제시한 논의는 미국과 일본의 경계를 넘어 포클로어 연구전체가 공유해야 할 것이기도 하다.
- 17 필자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야나기타 구니오가 구상한 민속학의 세계적 전개를 ‘세계민속학’이라 하고, 이것이 현실의 사회에서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의 것을 ‘글로벌 포클로어 연구(Global Folkloristics)’라고 칭하고 있다.
- 18 예를 들어 『일본민속학』 259(특집 해외의 현대민속학-동아시아편), 2009; 『일본민속학』 263(특집 해외의 현대민속학-구미편), 2010 등.

참고문헌

- 浅井幸子, 「あとがき」, 『ことばと社会—さまざまなドイツ語—』ヘルマン・バウジンガー著, 浅井幸子・下山峯子訳, 三修社, 1982.
- 岩本通弥, 「現代民俗学への方法論的転回」, 『日本民俗風土論』千葉徳爾編著, 弘文堂, 1980.

- 川田順造, 『文化人類学とわたし』, 青土社, 2007.
- 桑山敬己, 『ネイティブの人類学と民俗学—知の世界システムと日本—』, 弘文堂, 2008.
- 河野 眞, 『ドイツ民俗学とナチズム』, 創土社, 2005.
- 小島櫻禮, 『琉球学の視角』, 柏書房, 1983.
- 小長谷英代, 『パフォーマンス理論—『ポスト』領域の民俗学—』, 『日本民俗学』, 二六三, 2010.
- 小長谷英代・平山美雪編訳, 『アメリカ民俗学—歴史と方法の批判的考察—』, 岩田書院, 2012.
- 島村恭則, 『<生きる方法>の民俗誌—朝鮮系住民集住地域の民俗学的研究—』, 関西学院大学出版会, 2010.
- _____, 『引揚者—誰が戦後をつくったのか?—』, 『現代文化のフィールドワーク 入門—日常と出会う, 生活を見つめる—』山
泰之・足立重和編著, ミネルヴァ書房, 2012.
- 菅 豊, 『民俗学の悲劇—アカデミック民俗学の世界史的展望から—』, 『東洋文化』 九三, 2012.
- _____, 『「新しい野の学問」の時代へ—知識生産と社会実践をつなぐために—』, 岩波書店, 2013.
- 鈴木正崇, 『民族学と民俗学』, 『日本民俗学』 二〇〇, 1994.
- 関一敏編著, 『民俗のこぼれ』(現代民俗学の視点 二), 朝倉書店, 1998.
- ダンデス, アラン, 『フォークロアとは何か』, 『フォークロアの理論—歴史地理的方法を越えて—』荒木博之編訳, 法政大学出版
局, 1994<1965>.
- 鶴見和子, 『殺されたもののゆくえ—私の民俗学ノート—』, はる書房, 1985.
- _____, 『柳田國男論』(コレクション鶴見和子曼荼羅IV, 土の巻), 藤原書店, 1998.
- パウジンガー, ヘルマン, 『ことばと社会—さまざまなドイツ語—』, 浅井幸子・下山峯子訳, 三修社, 1982<1972>.
- _____, 『科学技術世界のなかの民俗文化』, 河野眞訳, 愛知大学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 2001<1961>.
- 平山美雪, 『民俗学における物質文化研究—アメリカと日本の事例を巡って—』, 『比較生活文化研究』 一五, 2008.
- 福田アジオ・菅豊・塚原伸治, 『「二〇世紀民俗学」を乗り越える—私たちは福田アジオとの討論から何を学ぶか?—』, 岩田書院,
2012.
- ヘアリン, ゲリット, 『人生記録研究・日常文化研究のテーマとしての科学技術』, 『日本民俗学』 二六三, 2010.
- 法橋 量, 『現代ドイツ民俗学のブルーリズム—越境する文化科学への展開—』, 『日本民俗学』 二六三, 2010.
- 牧田 茂, 『木曜会時代』, 『評伝柳田國男』, 牧田茂編著, 日本書籍, 1979.
- 柳田國男, 『郷土生活の研究』, 筑摩書房, 1967<1935>.
- _____, 『青年と学問』, 岩波書店, 1976<1928>.
- _____, 『民間伝承論』 第三書館, 1986<1934>.
- 柳田國男研究会編著, 『柳田國男伝』 三一書房, 1988.
- 山 泰幸, 『<現在>の<興行>へのまなざし—社会学との協業の経験から—』, 『現代民俗学研究』 1, 2009.
- _____, 『民俗学の研究動向』, 『村落社会研究』 四七, 2011.
- Ben-Amos, Dan, 1972, “Toward a Definition of Folklore in Context,” Americo Paredes and Richard Bauman eds.,
Toward New Perspective in Folklor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2, 3-15
- _____, 1977, “The Context of Folklore,” William R. Bascom eds., *Frontiers of Folklore*, Boulder:
Westview Press, 36-53.
- Bendix, Regina F, 2012, “From Volkskunde to the ‘Field of Many Names’: Folklore Studies in German-Speaking
Europe Since 1945,” Regina F. Bendix and Galit Hasan-Rokem eds., *A Companion to Folklore*,
Chichester: Wiley-Blackwell, 364-390.
- Bendix, Regina F. and Galit Hasan-Rokem eds., 2012, *A Companion to Folklore*, Chichester: Wiley-Blackwell.
- Blank, Trevor J., 2009,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Folklore and the Internet,” Trevor
J. Blank ed., *Folklore and the Internet: Vernacular Expression in a Digital World*, Logan: Utah State
University Press, 1-20.
- Brigs, Charles L., 2008(2012), “Disciplining Folkloristics,”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45(1): 91-105. (『民俗学の
学問領域化』, 『アメリカ民俗学—歴史と方法の批判的考察—』, 小長谷英代・平山美雪編訳, 岩田書院)
- Dundes, Alan ed., 1965, *The Study of Folklor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Dundes, Alan, 1977(1985, 1988), “Who are the Folk,” William R. Bascom ed., *Frontiers of Folklore*, Boulder:
Westview Press, 17-35. (『常民(FOLK)とは何か』 I, 飯島吉晴訳, 『人類文化』 五・六(合併号), 『常民(FOLK)とは何
か』 II, 飯島吉晴訳, 『人類文化』 七)
- Glassie, Henry, 1999(2012), “Material Culture,” *Material Cul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40-86.
(『物質文化』, 『アメリカ民俗学—歴史と方法の批判的考察—』, 小長谷英代・平山美雪編訳, 岩田書院)

- Haring, Lee. and Regina F. Bendix, 2012, "Folklore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Regina F. Bendix and Galit Hasan-Rokem eds., *A Companion to Folklore*, Chichester: Wiley-Blackwell, 286-304.
- Lawless, Elaine, 1991, "Women's life stories and reciprocal ethnography as feminist and emergent,"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28(1): 35-61.
- _____, 1992, "I Was Afraid Someone Like You ... an Outside ... Would Misunderstand' : Negotiating Interpretive Differences between Ethnographers and Subjec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05(417): 302-314.
- Noyes, Dorothy, 2008(2011), "Humble Theory,"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45(1): 37-43. (『ハンブル・セオリー』及川高訳, 『現代民俗学研究』三)
- Primiano, Leonard Norman, 1995(2007), "Vernacular Religion and the Search for Method in Religious Folklife," *Western Folklore*, 54(1): 37-56.(『宗教民俗における方法の探究とヴァナキュラー宗教(Vernacular Religion)』, 小田島建己訳, 『東北宗教学』三)
- Sims, Martha C. and Martine Stephens, 2011, *Living Folklore, Second Edition: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eople and Their Traditions*, Logan: Utah State University Press.

